

판로 걱정 없는 '가루쌀' ... "생산지원 최선"

농식품부 가루쌀 주산지 해남서 육묘 상황 점검

전한영 식량정책관 "가루쌀 생산단지 관리·지원"

전남도와 농림축산식품부가 판로 걱정 없는 '가루쌀' 생산 지원을 위해 현장 점검 활동을 펼쳤다. 전남도는 21일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관이 해남농협과 농업회사법인 참두레를 방문해 가루쌀 육묘 상황을 살피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현장점검에는 조남준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장, 박홍재 전남농업기술

원장, 강효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 김차진 해남부군수 등이 함께했다. 전남은 올해 기준 전국 가루쌀 생산단지 2000ha의 37%(730ha)를 차지하는 주산지다. 이 중 해남은 전국 군 단위에서 최대 규모인 235ha에서 해남농협, 농업회사법인 참두레 등 5개 법인이 가루쌀을 재배하고 있다.

가루쌀은 이모작에 적합한 품종이다. 겨울엔 조사료와 밭을 심고 6월 중하순에 심어 조기 수확이 가능하다. 특히 밥쌀용 벼 대체 작목과 밀가루 대용으로 주목 받는 가루쌀은 정부에서 공공비축 형식으로 전량 매입하기 때문에 판로 걱정 없이 재배할 수 있다. 전한영 식량정책관은 "안정적 가루쌀 생산을 위해 재배단계별 표준 재배법을 잘 지켜야 하고 수발아 위험성이 큰 만큼 농작물 재해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달라"며 "앞으로도 가루쌀 생산 현장의 어려움이 최소화

되도록 생산단지별 관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강효석 국장은 "가루쌀 재배는 기존 논을 활용해 벼를 재배하기 때문에 쌀 적정 생산에 도움을 주고 이모작 재배로 논 활용률을 높여 농가소득 향상에도 보탬이 된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가루쌀 재배단지에 교육·컨설팅 비용 3000만원, 가루쌀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트랙터·이앙기·콤바인 등 시설장비 구입비로 최대 5억원, 전략작물 직불금으로 1ha당 최대 2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김호 기자

광주 대표 테마마을 활력 방안 찾는다

시·5개 자치구, 공폐가 활용·관광객 유치 방안 등 논의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21일 오후 양림문화센터에서 회의를 열어 대표 테마마을 등 관리·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문영훈 행정부시장 주재로 열린 이날 회의에는 광주시와 자치구 관계자 20여 명이 참석해 ▲대표 테마마을 및 테마거리 관리실태 공유 ▲마을관리 주민참여 활성화 방안 ▲창의적인 공·폐가 활용 ▲관광객 유치 및 마케팅 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역 대표 테마마을은 ▲동구 동명동 카페거리 ▲서구 청춘발산마을 ▲남구 양림동·평안마을 ▲북구 시화문화마을 ▲광산구 고려인

마을 등 5곳이다. 대표 테마거리로는 ▲북구 케이팝(K-POP) 스타의 거리 ▲북구 제이홀거리 (HOPE STREET) 등 2곳이다. 회의에서는 자치구별 대표 테마마을과 테마거리를 지역의 고유한 특색과 경쟁력을 갖춘 관광자원으로 집중 관리하고, 테마마을 간 연계성을 강화해 지역민은 살고 싶고, 관광객은 찾고 싶은 활력 넘치는 명소로 육성하기로 했다. 광주시 대표 테마마을 중 하나인 발산마을은 행정안전부 2023년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돼 마스터플랜 수립에 착수했다. /김도기 기자

광주비엔날레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 첫 방한...방향 제시

니콜라 부리오 제 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선인 이후 첫 광주를 찾아 전시 연구와 함께 비엔날레 방향성을 발표한다. (재)광주비엔날레는 니콜라 부리오 제 15회 광주비엔날레 예술감독이 오는 27일까지 7박 8일 일정으로 광주·서울을 찾는다"고 21일 밝혔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첫 공식 일정으로 이날 박양우 광주비엔날레 대표이사·임원진과 만나 제 15회 광주비엔날레 계획을 논의했다. 그는 앞으로 광주 주요 문화 예술 기관을 돌며 첫 연구 일정을 소화한다. 특히 광주역사민속박물관·광주 시립미술관·국립아시아문화전당 등 문화예술 공간과 광주의 역사를 담은 전일빌딩245도 찾을 계획이다. 니콜라 부리오 예술감독은 오는 25일과 26일 광주비엔날레 방향 발표 기자회견을 각 광주와 서울에서 연다.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전남도는 21일 도청 정철실에서 레이저산업 생태계 조성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어 초강력 레이저 연구시설 유치 및 국내 유일 레이저 산업생태계 조성 계획 마련에 본격 착수했다. /전남도 제공

'17년 갈등' 목포-무안 택시업계 사업구역 통합 청신호

전남도 "해묵은 갈등 해소로 택시 이용객 불편 해소 기대"

전남도의 적극적인 중재로 목포시와 무안군 택시업계 간 해묵은 사업구역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21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청이 무안 남악신도시로 이전한지 17년 만에 목포와 무안 택시 사업구역 통합에 청신호가 쬐겨 택시 이용객 불편 해소가 기대된다. 전남도는 최근 사업구역 통합 인센티브 지원을 위해 도비 6억5000만원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했다. 이 예산은 목포-무안 택시 종사자의 안전 운행을 돕고 이용객 서비스

향상을 위한 택시 장비 설치 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앞서 전남도는 지난 17년간 목포시와 무안군 간 택시 사업구역 통합을 수십 차례 시도했지만 사업구역 통합 범위와 택시 면허 총량제에 대한 의견 충돌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택시는 여객자동차운수법에 따라 구역사업 면허로 구분돼 허가받은 사업구역 내에서만 영업을 할 수 있다. 허가받지 않은 곳에서 영업하다 적발되면 사업구역 위반으로 과징금 40만원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 때문에 목포에서 남악으로 가는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도 빈번하게 일어나 남악신도시 주민의 교통 불편 민원이 지속됐다. 이에 전남도는 목포 전체와 무안 옹동지구를 포함한 남악신도시의 사업구역 부분 통합안을 제시했다. 해당 통합안은 목포 택시도 무안 남악신도시에서 영업을 할 수 있고, 무안 택시 또한 목포 전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어 불필요한 사업구역 분쟁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최적의 안으로 평가받는다. 김병호 전남도 도로교통과장은 "택시 이용객의 불편 해소와 양 시·군 택시 업계의 상생을 위해 통합 합의가 이뤄지도록 전남도가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합의안 통과

조합원 65.5% 노사 임단협 합의안 찬성

광주 시내버스 조합원 과반 이상이 노사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올해 시내버스 임단협 교섭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2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광주지역버스노동조합원의 65.5%가 올해 노사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앞서 노조는 전날 오후부터 이날 오전까지 조합원을 대상으로 올해 임단협 잠정합의안에 대해 찬반 투표를 벌였다. 전체 조합원 1338명 중 992명이 투표에 참여해 65.5%(650명)가 찬

성했다. 650명(34.4%)은 반대했다.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지난해 대비 3.5%인상 ▲단체 공휴일 유급 적용 ▲노사 합의 시 정년 연장 ▲공가 휴가(경조사)일수 신설·확대다. 조합원 과반 이상이 합의안에 찬성하면서 노사는 오는 22일 오후 4시에 합의문 조인식을 연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광주시내버스 노사 합의안이 사항 변동 없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합원 투표까지 마쳐 올해 임단협은 사실상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조선주 기자

광주,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구호체계 구축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거점 대피시설 지정 등

광주시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정비·거점 대피시설 지정·재해구호물자 점검 등 구호체계를 점검·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광주시는 올 여름 집중호우에 대비, 지난 4-5월 임시주거시설 174곳과 재해구호물자를 점검했다. 이달 초에는 5개 자치구 이재민 구호담당자와 실무회의를 갖고, 호우 대비 이재민 구호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지난 20일에는 자치구가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안내표지판 143곳에 대한 정비를 할 수 있도록 재해구호기금 1억4300만 원을 지원하고, 하

반기까지 자치구별 1곳 씩 거점 대피시설을 지정하도록 했다. 거점 대피시설은 지역 임시주거시설 가운데 접근성이 높고, 충분한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곳으로 지정한다. 평시에는 기존 시설대로 운영하고 갑작스러운 집중호우 등 재난상황에는 일시적으로 대피시설로 운영한다. 광주시는 호우 상황에 대비, 자치구와 긴밀한 구호체계를 유지하고 이재민이 발생할 경우 즉시 임시주거시설을 개방하고 재해구호물자를 배부해 이재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조선주 기자

광주 최대 야시장 축제 남도달밤야시장 내일 개장

광주시는 오는 23일부터 11월 18일까지 동구 대인시장에서 남도달밤야시장을 개장한다고 21일 밝혔다. 남도달밤야시장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부터 10시까지 열린다.

광고문의 : 062-363-8800

신문광고 매체 모든 것 호남매일에 맡겨주십시오

전화 한통화로 광고효과를 확인하세요

공고광고	대리점모집 및 사원모집광고, 사무실 이전광고, 결산공고, 분실광고, 정부 및 관공서 광고 등
준공고광고	영업(PR)광고와 공고광고가 혼합된 광고
부동산광고	부동산 관련광고와 분양 영업광고 일반적 상품광고, 기업PR 광고, 세일광고 등
정치 및 긴급성 광고	성명서, 호소문, 해명서 등 긴급을 요하는 광고와 정치단체(정당)에서 하는 정치광고
안내광고	구인, 구직, 부동산 임대나 매입, 중고품 판매, 결혼상담 등 각종 생활정보 광고

광고접수 : 062-363-8800 FAX:062-362-0078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 이메일:honamnews@hanmail.net